

한국 유성기음반에 관한 음반문헌학적 연구의 결실

—배연형,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지성사, 2019)

송미경*

국문초록

배연형의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는 1897년부터 1945년 사이 한국의 유성기와 유성기 음반,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화적 현상의 전모를 담아낸 책이다. '제1부. 한국 유성기음반의 역사', '제2부. 유성기음반과 사회', '제3부. 유성기음반 시대의 음악'의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해당 시기 한국 유성기음반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방대한 분량의 한국 유성기음반 관련 시각자료와 문헌 기록을 한 자리에 집대성했다는 의미도 있다.

이 책에서 한국 유성기음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가 된 것은 이른바 '음반문헌학'이다. 이는 저자가 30여 년 전 발표한 「한국음악의 음반문헌학(Discography) 서설(1)」을 통해 학계에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후에 '음반 문헌 연구', '과학 기술적 연구', '음반의 내용 연구', '파생적 연구' 등으로 다시 구체화였다.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는 이러한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아우른, 음반문헌학적 연구의 훌륭한 결실이다.

저자가 시도한 것은 한국 유성기음반에 관한 사적 고찰로서의 음반문헌학 연구로, 음반사적 접근, 문화사적 접근, 음악사적 접근이 차례로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제1부 '한국 유성기음반의 역사'에서는 '음반 문헌 연구'를 주요한 방법론, '과학 기술적 연구'를 보조적인 방법론으로 삼아 한국 유성기음반사를 구축정립하였으며, '제2부 유성기음반과 사회'에서는 한국 유성기음반을 둘러싼 제 현상을 문화사, 특히 대중문화사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제3부 유성기음반 시대의 음악'은 '음반 문헌 연구'에 따른 성과를 토대로 '음반의 내용 연구'를 본격화한 논의인데, 특히 3장 '판소리와 창극, 가야금병창'에는 그동안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저자의 내공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다.

한편 저자가 이 책을 마무리하며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유성기음반 공공화이다. 그리고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가 이룩한 음반문헌학적 연구의 성취는, 음반의 연구와 음반의 수집·활용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

www.kci.go.kr

* 한국항공대학교 인문자연학부 교육중점교수

1. 유성기음반과 ‘음반문헌학(Discography)’

배연형 선생님의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¹⁾는 1897년부터 1945년 사이 한국의 유성기와 유성기음반, 그리고 이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문화적 현상의 전모를 담아낸 책이다. ‘제1부. 한국 유성기음반의 역사’, ‘제2부. 유성기음반과 사회’, ‘제3부. 유성기음반 시대의 음악의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해당 시기 한국 유성기음반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870면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안에 유성기-유성기음반의 실물 사진, 유성기음반 광고-홍보 전단 등 다종다양한 시각자료를 선명한 색감으로 수록하고, 국내외 신문-잡지 기사의 전문(全文)을 상세한 출처와 함께 실되 일부는 원문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유성기음반 관련 자료를 한 자리에 집대성한 성과로 인정될 만하다. 이들 사진 자료나 문헌 기록 가운데는 기존에 소개 또는 인용되었던 것도 있지만, 일본 콜럼비아사의 콜럼비아 원반대장(MASTER) 녹음대장신보 선정표 실물 사진, 1930년 빅타의 대리점인 세일상회에 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보도한 『중외일보』 기사 등 이 책을 통해 처음 공개되는 새롭고 귀한 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유성기음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한 이론적, 방법론적 토대가 된 것은 이른바 ‘음반문헌학’이다. 음반문헌학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저자가 발표한 논문 「한국음악의 음반문헌학(Discography) 서설(1) : 유성기음반의 문헌적 정리를 위하여」²⁾을 통해 처음 학계에 제기된 것이라는 사실은, 이 책의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보게 한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소리를 기록한 일체의 기록물 및 관련 자료를 음반문헌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음반이 담고 있는 재생음이나 음악 등

1) 배연형,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 지성사, 2019.

2) 배연형, 「한국음악의 음반문헌학(Discography)서설(1) : 유성기음반의 문헌적 정리를 위하여」, 『한국음악사학보』 4(1), 한국음악사학회, 1990.

내용이 지니는 정보에 관한 ‘본질적인 연구’와 음반의 재질 및 취입(吹込)과 재생기술에 관한 사항에 관한 ‘비본질적인 연구’로 연구의 분야를 나누었다. 1980년부터 고음반 수집을 시작한 저자가 10년여의 경험과 문제의식에 근거해 음반문헌학의 첫 번째 과제로 우선 강조한 것은 발매 음반회사별 음반 문헌의 정리 작업이었으며, 이는 1998년 『한국유성기음반 총목록』³⁾, 2011년 『한국 유성기음반: 1907~1945』⁴⁾, 그리고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⁵⁾를 통해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결실이 세상에 온전히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저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학계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8년, 저자는 앞의 논의를 조금 더 다듬고 보완하여 「한국음악의 음반문헌학 서설(2) : 한국음반학의 현황과 과제」⁶⁾를 발표했다. ‘본질적 연구’와 ‘비본질적 연구’로 다소 거칠게 양분하였던 음반문헌학의 연구방법을 음반 문헌의 이해와 체계적인 기술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음반 문헌 연구, 음반에 담긴 정보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재생하는 기술이나 잡음의

-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 민속원, 1998. 이 책은 ‘일제시대 국악활동 자료집’ 중 한 권으로, 제1권은 1945년 이전에 출판된 유성기음반의 목록, 제2권은 1926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방송된 경성방송국(JODK)의 국악프로그램 및 1930년대 이왕직악부의 이습회(肄習會) 관련 내용, 제3권은 1907년부터 1945년까지 각종 잡지에 수록된 국악관련 저술과 같은 시기 각 일간지에 실린 국악 관련 기사를 다루었다. 배연형 선생님은 당시 제1권의 음반 정리와 집필을 담당했다.
 - 4)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 유성기음반: 1907~1945(전5권)』, 한결음더, 2011. 이 책은 1907년부터 1945년 사이 유성기음반, 가사지, 광고, 매월신보, 기사 등 유성기음반 관련 문헌 자료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다. 제1권은 콜롬비아 음반, 제2권은 리갈빅타 음반, 제3권은 시에론오케 음반, 제4권은 나팔통포리돌태평군소 음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5권은 해제색인이다. 당시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의 연구책임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이다.
 - 5)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접속주소는 다음과 같다. 1) <http://www.sparchive.co.kr> 2) <http://www.78archive.co.kr> 3) <http://www.78archive.net> 한국유성기음반) 소개) 공지사항, <http://78archive.co.kr/v2/sub/introduce/notice.php?at=view&bid=21&uid=4376>(접속일 2020.12.22.)
 - 6) 배연형, 『한국음악의 음반문헌학 서설(2) : 한국음반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음악사학보』 14(1), 한국음악사학회, 1995.

처리, 음반의 과학적 보존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기술적 연구, 음반에 담긴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음반의 내용 연구, 음반과 관련된 타 학문 분야의 연구에 해당하는 ‘파생적 연구로 구체화하면서, 이들 방법론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20여 년이 지나고 2019년에 발간된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는 이상의 ‘음반 문헌 연구, ‘과학 기술적 연구, ‘음반의 내용 연구, ‘파생적 연구의 방법론을 발전적으로 아우른, 음반문헌학적 연구의 훌륭한 결실이다.

2. 한국 유성기음반에 관한 사적 고찰: 음반사적, 문화사적, 그리고 음악사적 접근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는 학술서와 대중서의 중간 즈음에 놓이는 책이다. 문학, 역사학, 음악학 등 유관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해석과 신자료를 풍부하게 갖춘 본격적인 연구서이자 유성기음반에 일정 정도 관심을 지닌 일반 대중이 각양각색의 이미지 자료에 흥미를 느끼며 길잡이로 삼아볼 만한 안내서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때로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수준까지 깊이 파고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상적이거나 다소 가벼운 느낌마저 들게 하는 기술(記述)이 주가 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독자가 자기 관심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그 집중도를 조절해가며 읽어나가기에 큰 무리가 없다. 부록으로 제공되는 두 장의 CD에 담긴 37개의 음원 역시 유관 분야 연구자나 일반 대중 모두에게

7) 부록인 「유성기음반 잡지(雜識)에는 ‘원반번호/매트릭스 번호’, ‘발매번호/카탈로그 번호’, ‘원통형과 원반형(포노그래프와 그라모폰)’, ‘유성기와 축음기’, ‘나팔녹음과 전기 녹음’, ‘유성기와 전축’, ‘유성기판과 축음기판, SP와 LP, EP의 명칭’, ‘음반의 발매일’ 등 항목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읽고 제1부로 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나름의 의미를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책이 이러한 중간적 성격을 띠는 만큼, 어떤 논쟁적인 쟁점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식의 서평을 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아직 서평자의 공부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다. 이에 여기서는 책의 주요 내용을 차례로 짚어보면서 그에 관한 견해를 조금 덧붙이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는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성기 시대의 유성기와 유성기음반을 둘러싼 음반사적 접근, 문화사적 접근, 음악사적 접근이 차례로 논의의 중심에 놓인다.

제1부 ‘한국 유성기음반의 역사’에서는 ‘음반 문헌 연구’를 주요한 방법론으로, ‘과학 기술적 연구를 보조적인 방법론으로 삼아 한국 유성기음반사를 구축정립하였다.

- ①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1998):
 1. 음반의 여명기(1899~1906)
 2. 초기 음반 시대(1907~1911)
 3. 유성기음반 성장기(1911~1928)
 4. 유성기음반 전성기(1929~1945)
 5. 쇠퇴기(1945~1960년대 중반)
- ② 『한국 유성기음반: 1907~1945』(2011):
 1. 한국 유성기음반의 여명기(1899~1906)
 2. 유성기음반의 성장기(나팔통 녹음, 1907~1927)
 3. 유성기음반의 전성기(전기녹음, 1928~1945)
- ③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2019):
 1. 녹음의 역사와 유성기의 탄생
 2. 한국의 근대문화 환경과 유성기음반의 전래
 3. 유성기가 만들어낸 근대적 현상
 4. 일본축음기상회의 조선 진출
 5. 일축일동 양사 체제의 등장과 1920년대 음반시장의 전개

6. 전기녹음 시대와 유성기의 전성기

저자가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음반사 기술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위에서 보듯 ①과 ②가 대체로 비슷한 데 반해 ③은 음반사 기술의 방식이나 접근법이 약간 다르다. 우선 ‘과학 기술적 연구의 성과를 적극 수용한 1장에서는, 인류의 기록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그 안에 소리의 녹음을 포함하게 된 과정을 설명한 다음, 포노토티그래프(Phonautograph)에 관한 소개를 시작한다. 이러한 구성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무리 유성기 문화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통해 굴절되어 들어왔다고는 해도 한국 유성기음반의 역사 또한 세계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게 전개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장차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한국 유성기음반의 모습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⁸⁾라는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또 녹음 방식의 변화를 음반사 시대 구분의 주요한 기점으로 삼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음반 시장의 상황, 공연예술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반사의 구분 자체를 세분화한 것도 특징적이다. 이전에 음반사의 기점을 1899년으로 잡았던 것은 유성기가 한국 땅에 처음 소개된 해였기 때문인데, ③에서는 기점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기계를 통한 최초의 청음은 1866년, 최초의 조선인 녹음은 1896년, 최초의 유성기 연주는 1897년, 최초의 유성기 흥행 산업은 1899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두루 함께 제시했다. 참고로 이때 유성기 흥행 산업이란, 신기한 유성기 소리를 들려주고 돈을 받던 ‘유성기잡’을 말한다.

이로부터 저자가 대체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 유성기 음반사를 구축정립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유성기음반이 아닌 기계로서의 유성기에 초점을 맞춰 이것을 둘러싼 이미지나 담론의 형성을 고찰한 ³. 유성기가 만들어낸 근대적 현상이 나머지 장과 내용적으

8) 배연형, 위의 책, 2019, 829면.

로 차이를 보이는 점이나 유성기집의 운영, 음반사의 영업과 판매 전략 등을 다룬 부분이 '제2부 유성기음반과 사회'의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점에 관해서는 서술 맥락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다음 '제2부 유성기음반과 사회'에서는 한국 유성기음반을 둘러싼 제 현상을 문화사, 특히 대중문화사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1장 '유성기음반의 기획과 제작'에서는 음반산업 또는 음반 시장의 관점에서 유성기음반이 어떻게 기획 및 제작되었는지 밝혔다. 특히 서울에 일축 경성취입소가 개설되고 여러 일본 음반회사가 조선에 진출하면서 조선의 유성기음반 취입에 전환점이 마련되자,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문예부장이 음반 제작을 주도하게 된 내용을 세밀하게 포착하였다. 다만 책에서는 1930년대 후반 일본에서 양악을 전공한 유학생 출신 문예부장들이 음반업계에 중심 세력을 형성하면서 전통음악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진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였는데,⁹⁾ 이는 저자의 관심사가 주로 전통음악에 놓인 데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대중음악이나 외래음악의 영역에서는 이 변화를 달리 평가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2장 '유성기음반과 일상'에서는 유성기음반 유통과 소비의 문제를, 3장 '일제하의 음반 검열'에서는 유성기음반 단속과 통제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심층적인 분석에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 또는 정리하는 데 그친 데가 부분적으로 있기는 하였으나, 유성기 구매와 음반 소비의 문제, 유성기에 대한 지식과 가정 상식의 문제 등 향후 '파생적 연구'로의 확장을 기대하게 하는 지점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유성기 시대의 문화, 유성기음반에 담긴 다양한 소리는 시대의 문제와 사회적 풍속을 읽어내는 유용한 수단이 될 만하다.

마지막 '제3부 유성기음반 시대의 음악'은 '음반 문헌 연구' 방법론에 따

9) 저자는 "1930년대 후반 전통음악을 전공하거나 깊이 이해하는 문예부장이 없었다는 것은 시대적·구조적인 한계 이상으로 음악사적 기록의 측면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평하였다. 같은 책, 531면.

른 성과를 토대로 ‘음반의 내용 연구’를 본격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설정한 한국 유성기음반의 분류 체계 및 일종의 각론에 해당하는 2장 ‘서울소리와 평양소리, 가사와 잡가’, 3장 ‘판소리와 창극, 가야금 병창’, 4장 ‘창가, 새 시대를 노래함에서 논의한 세부 항목(밑줄로 표시)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통음악:** 궁중음악(제례악·연례악·행악), 풍류음악(가곡·가사·시조·독서성·풍류기악), 민요(서도민요·경기민요·남도민요·동부민요·신민요), 잡가(서도잡가·경기잡가·남도잡가·재담소리·연회소리), 판소리(춘향가·심청가·수궁가·적벽가·홍보가·단가·창극·창작판소리·병창), 민속기악(독주·합주), 무속음악(서도무악·경기무악·남도무악), 불교음악(법패·화창·고사·타덕)
- ② **근대음악:** 대중음악(대중민요·유행가·만요·재즈송·정책가요·외국가요·경음악), 양악(동요·근대가곡·근대기악·외국곡)
- ③ **극:** 신극(근대극·아동극), 희극(난센스·스케치·만담), 악극(가요극), 영화극(영화설명)
- ④ **구술음향:** 구술(구연·교육·연설), 음향(효과음)
- ⑤ **미분류:** 미분류
- ⑥ **외국음반:** 일본음악(일본전통음악, 일본근대음악, 일본대중음악, 일본비음악), 동양음악(각국음악), 서양음악(서양성악, 서양기악)¹⁰⁾

이 분류 체계는 ‘한국 유성기음반 홈페이지’의 음반 분류 체계와 동일하다. 현재로서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의 체계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고, 분류의 상세한 정도에 차이가 있어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저자가 5장 ‘유성기음반 연구의 과제와 활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통음악 중에서 기악에 속하는 작품, 1932년 이후 대중음악(유행가), 극적 장르(영화설명, 연극, 코미디) 등은 이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¹¹⁾ 영화극 분류에 관한 ‘음반의 내용 연구’는 저자가 2018년에 공저로

10) 같은 책, 655~657면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펴낸 『유성기 시대, 변사의 화예(話藝)』¹²⁾로 대신하여 볼 수 있겠는데, 위의 분류 체계에서는 ‘영화극이 중분류, ‘영화설명’이 ‘소분류’로 그 층위가 다른 데 반해 『유성기 시대, 변사의 화예(話藝)』에서는 ‘영화설명’과 ‘영화극이 대등한 층위로 다루어져 있어 조정이 요구된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3장 ‘판소리와 창극, 가야금병창’으로, 저자의 학문적 관심사에 따라 제3부를 통틀어 가장 밀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 업적을 이룬 저자의 내공이 발휘된 부분으로 분량 면에서도 나머지 각론을 압도한다. 김창룡, 이동백, 김창환, 송만갑, 강소춘, 이화중선, 박녹주 등 여러 명창이 남긴 유성기음반을 토대로 그 생애와 예술 세계를 촘촘하게 살폈으며, 일출판 춘향전(1926.12.), 시에론판 춘향전(1934.7), 콜럼비아판 춘향전(1934.11), 포리돌판 심청전과 화용도(1935.12.), 빅타와 오케 춘향전(1937), 오케판 흥보전과 심청전(1941~1942) 등 주요 창극 음반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과 변화도 고찰하였다. 물론 전체적인 체계나 서술의 균형을 고려하면 서술이 소략하거나 누락된 분류가 있는 점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조금만 세부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 미개척 분야’¹³⁾인 것이 유성기음반 연구의 실상이다. 물론 저자가 ‘미개척’ 분야라고 명명했다고는 하나, 이것이 해당 분야에서 자료의 축적이나 관련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서론」에서 ‘야사나 뒷담화가 아닌 근거와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해석’을 강조한바, 이는 대중음악 연구 시 정보와 자료의 신뢰성,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대중문화의 속성상 야사로 전해오는 정보에 관한 철저한 문헌 검증은 물론 회고와 증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본 서평자 역시 동의한다. 저자가 쌓아 올린 음반문헌학의 탄탄한 기반 위에서 여러

11) 같은 책, 827면.

12) 배연형구인모, 『유성기 시대, 변사의 화예(話藝)』, 한국문화사, 2018.

13) 배연형, 위의 책, 819면. 배연형, 위의 책, 829면.

·미개척 분야 연구가 꽃피울 수 있길 바라본다.

3. 문화 자원으로서의 유성기음반, 공공화의 길을 모색하다

한국음악 분야에서 유성기음반이 학술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 이보형에 의해서였다. 유성기음반에 관한 수집과 연구 역시 그의 선구적인 노력에서 비롯되었는데, 저자에 따르면 약 15년 동안 유성기음반의 수집은 이보형 1인이 도맡았다고 한다. 저자를 포함해 그 뒤를 잇는 수집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저자는 1980년대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989년 『판소리 5명창』 복각과 한국고음반연구회의 결성, 1998년 『한국유성기음반총목록』의 발간, 2011년 『한국 유성기음반: 1907~1945』의 발간과 유성기음반 디지털아카이브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의 개설 등 한국 유성기음반의 연구, 수집과 활용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¹⁴⁾ 덕분에 그간 다수의 유성기음반 복각반이 발매되었으며, 이제 유성기음반은 판소리를 비롯한 한국음악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의 하나로 인식된다.

“유성기음반에 담긴 음악을 듣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성기음반을 수집하고 정확히 재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를 정리하고 이해하여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그 이야기를 담았다.”¹⁵⁾

그러한 저자가 이 책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를 마무리하면서 힘주어 강조한 것이 바로 시대적 과제로서의 유성기음반 공공화이다. 국내 유

14) 배연형, 위의 논문, 1998, 95~96면; 배연형, 위의 책, 830~831면 참조.

15) 배연형, 위의 책, 4면.

성기음반은 6,500여 종 정도에 불과하므로, 각급 도서관과 방송국, 박물관, 연구소, 개인 수집가가 참여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수년 내로 음원의 수집과 DB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한국 유성기음반 문화사』가 이룩한 음반문헌학적 성과는, 음반의 연구, 음반의 수집·활용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제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긍정적인 예이다. 저자의 제안대로 유성기음반의 공공화가 진행된다면, 앞서 제기한 음반 분류 체계의 문제, ‘미개척 분야 연구 미비의 문제 등도 각계 공동의 노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